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장 호 연

장 진 이†

대구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부의 심리적 통제와 모의 심리적 통제로 나누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 경북, 울산 지역의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59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 내면화된 수치심 각각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적 공격성을 통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의 효과도 나타났다. 청소년 성별에 따른 구조적 관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가는 경로에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내면화된 수치심, 또래관계

* 본 연구는 장호연(2016)의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장진이,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38430)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Tel : 053-850-3237, E-mail : jjjang21@cu.ac.kr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상담 내용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가 2013년 779,740건(19.5%), 2014년 789,687건(19.09%)으로 학업 및 진로 문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15년에는 888,650건(22.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인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수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은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때 자신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며, 이해해 주는 또래에게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Hartup, 1993). 또래로부터의 인정과 수용은 청소년기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이영선, 이경남, 2004).

이러한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되어 왔는데, 이러한 변인들 가운데 부모 관련 변인을 들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이가 태어나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로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능력(이외영, 2002)과 대인관계 문제의 대처방식을 학습하게 된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는 자녀의 또래관계 형성과 또래 내에서의 인기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민선옥, 강영숙, 2015), 부모의 강압적이고 부정적 의사소통 방식은 대인관계 문제의 해결 능력을 저하시키고(조은정, 이기학, 2004), 자녀를 수동적으로 만들어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게 한다(박영신, 김의철, 2001; 이춘재, 곽금주, 2000). 또한 청

소년 비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Henry, Tolan, & Gorman-Smith, 2001).

특히, 최근에는 자녀의 또래관계와 관련하여 주목 받고 있는 개념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를 들 수 있다. 심리적 통제란 자녀의 생활에 규칙을 설정하여 행동을 지도하는 행동 통제와는 달리, 애정을 철회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 심리적 전략을 사용하여, 자녀의 심리·정서적 경험과 표현을 통제하는 언어 또는 비언어적인 행동이다(Barber, 1996). 독립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청소년에게 정서적 단절과 같은 회피 전략을 사용하게 하고(김유리, 김희정, 2013), 궁극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여(김민선, 서영석, 2009)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Barber, 1996). 실제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는 부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하였고, 또래관계의 질이 낮아졌다(조주연, 2010).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특히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지만, 최근에는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있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 또한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은 어머니의 역할 수행보다 아버지의 역할 수행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김정숙, 2006; 남진열, 김상미, 2011), 아버지의 자율적인 양육방식이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능력을 증가시켰다(최경순, 정현희, 1995; 한영숙, 2006). 이렇게 아버지의 양육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으나, 여전히 아버지의 양육 혹은 아버지와의 관계와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를 구분하여 청소년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래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는 데에는 청소년의 개인 내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안수영, 이형실, 2008),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ized shame)을 들 수 있다. 수치심은 크게 상태 수치심(state shame)과 내면화된 수치심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상태 수치심은 특정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느끼는 정서이고, 내면화된 수치심은 개인 내면의 성격 특성으로 존재하는 정서이다(Cook, 2001). 상태 수치심은 잘못에 대한 반성, 양심과 같이 긍정적 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Kaufman, 1989), 내면화된 수치심은 정서적 어려움의 일차적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개인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은 내면화된 수치심은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경험을 주요 형성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양육 초기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와 비현실적인 기대 인해 반복적인 좌절을 경험한 자녀는 수치심이 발달하게 되어 개인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Wells & Jones, 2000). 그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나하영, 신태섭, 2016), 지속적으로 타인에 대한 지각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한다(Claesson & Sohlberg, 2002).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이인숙, 최혜림, 2005; Allan, Gilbert, & Goss, 1994),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 변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서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나 의

도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이러한 이유로 자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다(Loader, 1998). 최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된 만큼(전혜련, 이지연,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죄책감, 격노, 공격성 등과 같은 여러 이차정서를 유발한다(Harder & Lewis, 1987). 높은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분노와 적대감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거나(황지연, 2014),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직·간접적으로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이지연, 2008). 즉, 수치심으로 유발되는 자신에 대한 분노가 타인에 대한 분노로 전환이 되어 우회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적 공격성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앞서 살펴본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이란 의도적으로 집단에서 제외시키기, 나쁜 소문 퍼뜨리기, 뒷말하기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또래 관계를 조정하고 손상시키는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성을 의미한다(Nelson & Crick, 2002). 청소년기에는 사회지능 발달로 인해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사회적 비난을 지각하고, 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은밀하게 표출하게 된다(박민정, 최보가 2004; 이하연, 2014; 이홍, 김은정, 2012). 실제 공격성의 발달 궤적을 연구

한 선행연구들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모두에게서 외현적 공격성은 감소하고 관계적 공격성은 증가하였으며(최지영, 허유성, 2008; Archer, 2004), 관계적 공격성의 반응 수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훨씬 더 정교하고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심주한, 유형근, 손현동, 2008; 최현화, 2000).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또래와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청소년시기의 관계적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보다 더욱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Crick, Ostrov, & Werner, 2006).

실제 최근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를 사용한 비물리적 폭력 등 사회적 관계를 이용한 집단따돌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청예단, 2015), 관계적 공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관계적 공격성의 형태는 절교하기, 나쁜 소문으로 집단에서 제외시키기, 이간질하여 우정 조작하기, 상처 입힐 목적으로 편애하기, 집단에서 제외시켜 보복하기 등이 있다. 이러한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알아차리기 힘들어 중재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심은신, 이동훈, 2011).

관계적 공격 성향을 가진 아동들은 감정이입, 조망수용 능력 등과 같은 사회인지와 이해 능력이 발달되어 있지만(Bjorkquist, Lagerspetz, & Kaukianen, 1992), 친밀한 관계에서의 대인·사회적 기술의 조작으로 인해 불신감을 형성하여 안정된 또래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한다(심주한, 유형근, 손현동, 2008).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Eron, 1982),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oon, Barton,

& Taiariol, 2004). 특히, 심리적 통제의 애정 철회 전략은 친구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무리에서 소외시키거나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관계적 공격성과 비슷하다는 점이 밝혀졌다(Kuppens, Grietens, Onghena, & Michiels, 2009). 이렇듯 관계를 조작한다는 점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이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경험한 자녀는 상대방을 조종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학습하고(Bandura, 1995), 이를 또래관계에 적용하게 된다(Nelson & Crick,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지금까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각각의 개별 영향력에 대한 이해에 그쳐 실질적인 상담 실제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개입 변인에 대한 탐색과 변인들 간의 통합적인 구조적 관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들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부모자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차이를 보였다(김수희, 박성연, 2009). 또한 프렌디(friendly = friend + daddy)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아버지 양육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소리나, 2016),

선행연구와 차별화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심리적 통제를 구분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의 성에 따라 심리적 통제의 정도가 다르다는 선행연구(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2008)를 바탕으로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가설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관계적 공격성, 내면화된 수치심,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가설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이중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가설 4. 남녀 집단 간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내면화된 수치심, 또래관계의 구조적 관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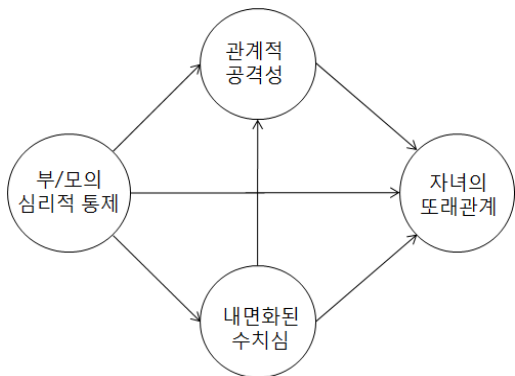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대구, 경북, 울산 지역의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660명이었고, 그 중 불성실한 설문지 65부를 제외한 595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성비는 남자 283명(47.6%), 여자 312명(52.4%)으로 여자가 다소 많았다. 학년으로는 중학교 1학년 118명(19.8%), 중학교 2학년 107명(18.0%), 중학교 3학년 20명(3.4%), 고등학교 1학년 44명(7.4%), 고등학교 2학년 224명(37.6%), 고등학교 3학년 82명(13.8%)이었다.

측정도구

부모의 심리적 통제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를 전숙영(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표현 제한, 감정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의 6개 하위요인으로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직접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해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조금 그렇다(2점)', '그렇다(3점)'로 3점 Likert식 척도이다. Barber(1996)의 5~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모가 .83, 부가 .80이었고, 전숙영(2007)이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모의 심

리적 통제만을 사용한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78 또는 .80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공격성

Marsee, Kimons와 Frick(2004)이 개발한 자기 보고형 또래 갈등척도(Peer Conflict Scale; PCS)를 한영경(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반응적 관계적, 반응적 외현적, 주도적 관계적, 주도적 외현적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적 관계적,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차원만(2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4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3점)', '확실히 그렇다(4점)'로 4점 Likert식 척도이다. Marsee와 Frick(2007)의 연구에서 전체 관계적 공격성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73,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58,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54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

Cook(1987)이 개발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은 Cook(1987)의 ISS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각각 부적절감, 공허, 자기차별, 실수 불안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본 척도는 수치심을 측정하는 24개 문항과 자존감을 측정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된 총 30개 문항이다. 자존감 6개문항은 문항이 같은 방향으로 주어져 있을 경우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 Rosenberg(1965) 자존감 척도를

수치심 척도에 포함시킨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그런 경우가 없다(1점)', '가끔 그렇다(2점)', '그렇다(3점)', '자주 그렇다(4점)', '거의 항상 그렇다(5점)'로 5점 Likert식 척도이다. Cook(1987)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임상집단이 .96, 비임상집단이 .95로 나타났으며,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88, 부적절감 .88, 공허 .85, 자기차별 .75, 실수 불안 .81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

Furman과 Buhrmester(1985)이 개발한 NRI(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척도를 김진경과 유안진(2002)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주로 보이는 특성만을 추출하여 이를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우의, 상호친밀·공감대, 정서적·사회적지지, 갈등의 해결, 인기, 또래관계 만족도로 구성된 긍정적 요인 20개 문항과 갈등·대립, 일방적 주도, 철회·고립, 무시, 또래관계 불만족으로 구성된 부정적 요인 20개 문항 등 총 40개 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3점)', '확실히 그렇다(4점)'로 4점 Likert식 척도이다. 선행연구에서 부정적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역채점하여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 질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김진경(2002)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2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91, 긍정적 요인 .95, 부정적 요인 .77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과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검토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연구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잠재변인을 추정하는 측정변인이 많을 경우 추정오차가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사용하였다. 문항묶음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후, 각 묶음의 요인부하량이 유사하도록 문항들을 할당하고, 이를 평균을 내어 문항묶음을 형성하였다(Yuan, Bentler, & Kano, 1997). 그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또래관계는 각각 3개의 문항묶음, 내면화된 수치심은 4개의 문항묶음을 제작하여 측정변인으로 지정하였다. 넷째, 최적의 모형(best fitting model)구성을 위해 연구모형을 검토한 후, 관계가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로를 제거하여 간명성을 높이는 사후적 모델수정(post-hoc model modification)을 실시하였으며(배병렬, 2017),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표본의 크기에 대한 민감성,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상대적 적합지수인 TLI와 CFI와 절대적 적합지수인 RMSEA를 이용하였다(홍세희, 2000). 다섯째, 최종 모형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다중매개효과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사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집단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 통계치 및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의 심리적 통제와 모의 심리적 통제($r=.62, p<.01$)의 관계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부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r=.31, p<.01$), 내면화된 수치심($r=.27, p<.01$)은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r=.30, p<.01$), 내면화된 수치심($r=.30, p<.01$)은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적 공격성($r=.40, p<.01$)은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부의 심리적 통제($r=-.15, p<.01$), 모의 심리적 통제($r=-.10, p<.05$), 관계적 공격성($r=-.22, p<.01$), 내면화된 수치심($r=-.25, p<.01$)은 또래관계와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사용되는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 기본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도(-.31~2.91) 3미만, 첨도(-.19~9.22) 10미만으로 다변량 정규성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문수백, 2009). 구체적인 결과는 표 1과 같다.

주요 변인들의 성차

부모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내면화된 수치심, 또래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부의 심

표 1.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1 부의 심리적 통제	1				
2 모의 심리적 통제	.62**	1			
3 관계적 공격성	.31**	.30**	1		
4 내면화된 수치심	.27**	.30**	.40**	1	
5 또래관계	-.18**	-.10*	-.22**	-.25**	1
평균	1.47	1.49	1.16	2.01	3.07
표준편차	0.29	0.31	0.15	0.48	0.36
왜도	0.83	0.76	1.78	0.90	-0.32
첨도	0.29	0.30	3.91	0.93	0.10

주. N=595, * $p < .05$, ** $p < .01$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들 비교분석

구분	남자 (N=283)	여자 (N=312)	t
	M (SD)	M (SD)	
부의 심리적 통제	1.47 (.29)	1.36 (.26)	4.88***
모의 심리적 통제	1.49 (.31)	1.44 (.29)	2.08*
관계적 공격성	1.16 (.15)	1.16 (.14)	-0.14
내면화된 수치심	2.01 (.48)	1.99 (.44)	0.47
또래관계	3.07 (.36)	3.25 (.30)	-6.27***

주. N=595, * $p < .05$, *** $p < .001$

리적 통제, 모의 심리적 통제, 또래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의 심리적 통제는 남학생(M=1.47)이 여학생(M=1.36)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4.88, p < .001$). 모의 심리적 통제는 남학생(M=1.49)이 여학생(M=1.44)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8, p < .05$). 관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래관계의 질은 여학생(M=3.25)이 남학생(M=3.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6.27, p < .001$).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내면화된 수치심, 또래관계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히 설명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의 심리적 통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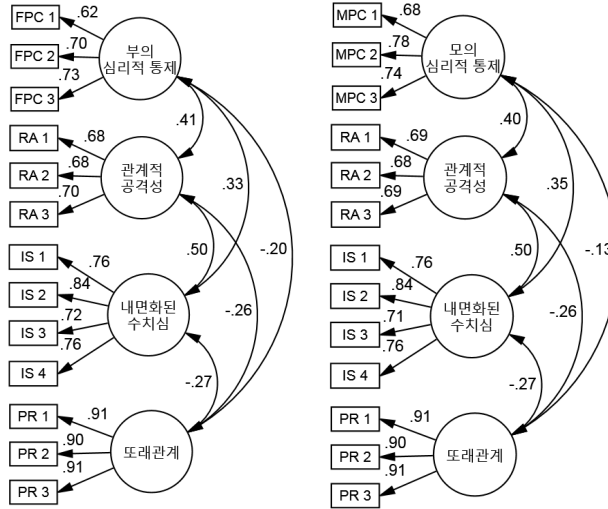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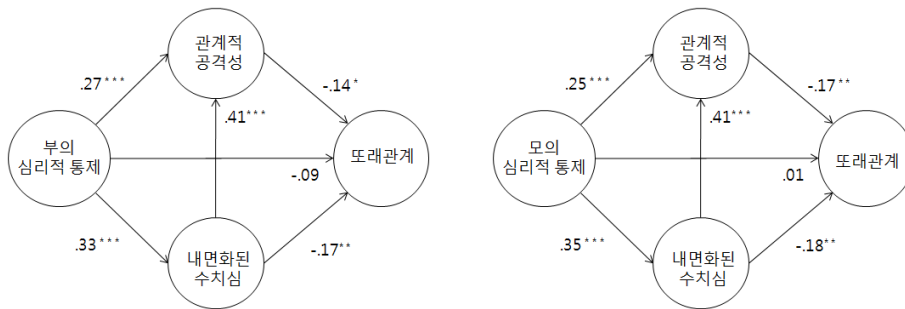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 $p < .01$, *** $p < .001$

그림 3.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형의 적합도는 $\chi^2=169.201(df=59, p < .001)$, CFI=.969, TLI=.959, RMSEA=.056로 나타났고, 모의 심리적 통제모형의 적합도는 $\chi^2=171.084(df=59, p < .001)$, CFI=.969, TLI=.960, RMSEA=.057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적합성은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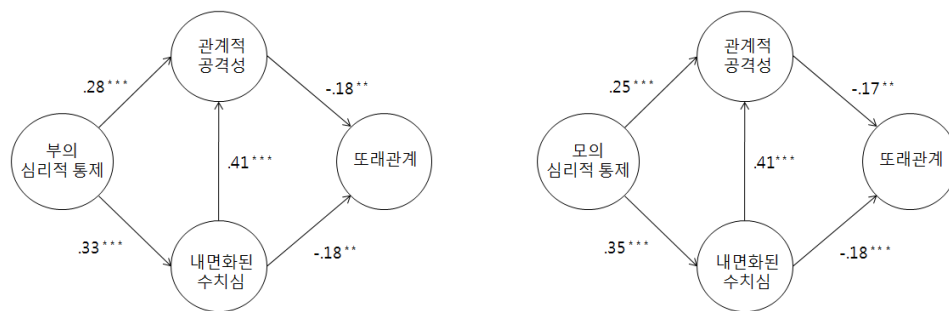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부의 심리적 통제모형의 적합도는 $\chi^2=169.201(df=59, p < .001)$, CFI=.969, TLI=.959, RMSEA=.056이고, 모의 심리적 통제모형의 적합도는 $\chi^2=171.084(df=59, p < .001)$,

CFI=.969, TLI=.960, RMSEA=.057로 대체로 양호한 모형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접경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따라서 연구모형에 비해 간명도가 높은 최적의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구성하였다. 수정모형의 분석 결과, 부의 심리적 통제모형의 적합도는 $\chi^2=171.544(df=60, p < .001)$, CFI=.968,

표 3.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구조방정식 적합도 결과

		χ^2	df	CFI	TLI	RMSEA
부의 심리적 통제	연구모형	169.201	59	.969	.959	.056
	수정모형	171.544	60	.968	.959	.056
모의 심리적 통제	연구모형	171.084	95	.969	.960	.057
	수정모형	171.107	60	.970	.961	.056



** $p < .01$, *** $p < .001$

그림 4. 수정된 최종 모형

TLI=.959, RMSEA=.056이고, 모의 심리적 통제 모형의 적합도는 $\chi^2=171.107(df=60, p<.001)$, CFI=.970, TLI=.961, RMSEA=.056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수정모형과 연구모형 간의 카이스퀘어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의 심리적 통제 모형($\Delta\chi^2=2.34$)과 모의 심리적 통제 모형($\Delta\chi^2=0.02$) 모두 자유도의 차이가 1일 때 χ^2 의 임계치가 3.84보다 작아 연구모형과 수정모형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는 간명성의 원칙에 따라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3, 그림 4와 같다.

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쳐 관계적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089~.202, .096~.241),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적 공격성을 거쳐 또래관계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143~-0.021, -.140~-0.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적 공격성을 거쳐 또래관계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194~-0.085, -.184~-0.088)에서 각각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p < .01$).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관계적 공격성이 매개하는 경로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하는 경로가 모두 포

표 4. 주요 변인들의 직접, 간접, 총 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95% 신뢰구간)					
부의 심리적 통제	→	내면화된 수치심	.334***	.334	
내면화된 수치심	→	관계적 공격성	.411***	.411	
관계적 공격성	→	또래관계	-.181**	-.181	
부의 심리적 통제	→ 내면화된 수치심 →	관계적 공격성	.276***	.137*** (.089~.202)	.413
내면화된 수치심	→ 관계적 공격성 →	또래관계	-.179**	-.074** (-.143~-.021)	-.254
부의 심리적 통제	→ 내면화된 수치심 → 관계적 공격성 →	또래관계	.000	-.135*** (-.194~-.085)	-.135
모의 심리적 통제	→	내면화된 수치심	.354***	.354	
내면화된 수치심	→	관계적 공격성	.413***	.413	
관계적 공격성	→	또래관계	-.171**	-.171	
모의 심리적 통제	→ 내면화된 수치심 →	관계적 공격성	.254***	.146** (.096~.214)	.400
내면화된 수치심	→ 관계적 공격성 →	또래관계	-.183***	-.071** (-.140~-.018)	-.253
모의 심리적 통제	→ 내면화된 수치심 →	관계적 공격성 →	.000	-.133*** (-.184~-.088)	-.133

주. ** $p < .01$, *** $p < .001$

함되어 있다. 각각의 경로 별로 간접효과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특정 간접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팬텀변수(phantom variables)를 활용하였다. 팬텀변수는 일종의 가상의 변수로 모형 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변환모형을 통해 각각의 개별 매개변수의 특정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이다(허준, 2013). 하지만 Amos에서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계산이 되지 않지만 표준화 계수는 계산이 되지 않는다(배병렬,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를 제시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관계적 공격성을 매개로 또래관계에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145~-0.019, -.124~-0.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또래관계에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158~-0.013, -.155~-0.023),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적 공격성을 거쳐 또래관계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075~-0.010, -.070~-0.009)가 각각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p < .05$). 구체적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팬텀변수를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

				간접 효과	95% 신뢰구간				
					low	upper			
부의 심리적 통제	→	관계적 공격성	→	또래관계	-0.072**	-0.145	-0.019		
부의 심리적 통제	→	내면화된 수치심	→	또래관계	-0.080*	-0.158	-0.013		
부의 심리적 통제	→	내면화된 수치심	→	관계적 공격성	→	또래관계	-0.037**	-0.075	-0.010
모의 심리적 통제	→	관계적 공격성	→	또래관계	-0.056**	-0.124	-0.017		
모의 심리적 통제	→	내면화된 수치심	→	또래관계	-0.083**	-0.155	-0.023		
모의 심리적 통제	→	내면화된 수치심	→	관계적 공격성	→	또래관계	-0.037**	-0.070	-0.009

주. * $p < .05$, ** $p < .01$, 위의 수치는 비표준화 계수임.

다집단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한 최적모형의 구조적 관계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계수를 동일하게 고정한 측정동일을 확인하였다. 부의 심리적 통제모형은 CFI=.958, TLI=.949, RMSEA=.044, 모의 심리적 통제모형은 CFI=.961, TLI=.953, RMSEA=.043로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여 남자집단과 여자집단의 측정모형은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앞서 측정동일성이 성립이 되었기에 남녀 두 집단사이의 경로계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5개의 경로계수 각각에 등가제약을 가한 구조동일성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측정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의 심리적 통제 모형($\Delta\chi^2(5, N=595)=1.552, \Delta TLI=.003, \Delta RMSEA=-.001$)과 모의 심리적 통제 모형($\Delta\chi^2(5, N=595)=6.094, \Delta TLI=.002, \Delta RMSEA=-.001$) 모두 전체 모형의 적합도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6과 같다.

그러나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모의 심리적 통제→내면화된 수치심($\Delta\chi^2=4.299, p < .05$)의 경로에서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준화 계수를 살펴보면, 모의 심리적

표 6. 다집단 분석의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Delta\chi^2$	df	Δdf	CFI	TLI	RMSEA
부의 심리적 통제	측정동일성	276.815		129		.958	.949	.044
	구조동일성	278.367	1.552	134	5	.959	.952	.043
모의 심리적 통제	측정동일성	268.809		129		.961	.953	.043
	구조동일성	274.903	6.094	134	5	.961	.955	.042

표 7. 남녀 집단별 경로 차이 검증 (부의 심리적 통제)

모수	남자		여자		χ^2 변화량	TLI 변화량
	B	β	B	β		
부의 심리적 통제 → 관계적 공격성	.16	.25**	.22	.32***	0.631	-.001
부의 심리적 통제 → 내면화된 수치심	.62	.37***	.47	.28***	0.794	.000
내면화된 수치심 → 관계적 공격성	.16	.42***	.16	.39***	0.001	-.001
관계적 공격성 → 또래관계	-.40	-.18*	-.39	-.20*	0.001	-.001
내면화된 수치심 → 또래관계	-.14	-.17*	-.15	-.19*	0.004	-.001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1.552	-.003

* $p < .05$, ** $p < .01$, *** $p < .001$

표 8. 남녀 집단별 경로 차이 검증 (모의 심리적 통제)

모수	남자		여자		χ^2 변화량	TLI 변화량
	B	β	B	β		
모의 심리적 통제 → 관계적 공격성	.12	.21**	.20	.33***	1.656	.000
모의 심리적 통제 → 내면화된 수치심	.38	.26***	.68	.45***	4.299*	.001
내면화된 수치심 → 관계적 공격성	.17	.48***	.14	.34***	0.895	.000
관계적 공격성 → 또래관계	-.39	-.18*	-.37	-.19**	0.009	-.001
내면화된 수치심 → 또래관계	-.14	-.17*	-.16	-.20*	0.018	-.001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6.095	-.001

* $p < .05$, ** $p < .01$, *** $p < .001$

통제→내면화된 수치심 경로에서 남학생은 $\beta = .26(p < .001)$, 여학생은 $\beta = .45(p < .001)$ 이었다. 즉,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적 변인과 개인 내적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적 개입을 위한 경험적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 경북, 울산지역의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595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주요 변인에서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부의 심리적 통제, 모의 심리적 통제, 또래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지만, 관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 모두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윤혜영, 강지현, 2015; 이서란, 2014). 성별에 따른 차별적 사회화로 부모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양육방식을 사용하고, 그 결과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모는 남아에게는 독립적이고 경쟁적하기를 기대하고 여아에게는 친절하고 협동적하기를 기대한다(최경숙, 2000). 따라서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기대차이로 인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여아가 남아보다 더 온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Armentrout & Burger, 1972). 또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정서적 자율성이 더 높아(장재선,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방식을 자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리적 통제 수준을 더 높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차별성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또래관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안수영, 이형실, 2009). 보통 여성이 관계지향적이라고 하는데, 여아들이 남아보다 감정이입과 공감능력이 뛰어나(정옥신, 김영희, 2008) 높은 친밀감을 형성하고(Parker & Asher, 1993), 또래환경에서도 상호작용이 활발하여(박성옥, 신귀순, 고영숙, 2004) 긍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관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차에 대한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은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경우와(이서란, 2014)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경우뿐 아니라(심희옥, 2007),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도 있었다(서미정, 2011). 그러나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의 차이 및 관련 변인의 메타분석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하였다(서미정, 2011). 단지, 남녀 모두 관계적 공격성의 사용 수준은 비슷하였으나 관계적 공격성이 사용되는 상황에서의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주로 소수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났지만, 남학생의 경우 좀 더 포괄적인 관계에서 사용하였다(Pronk & Zimmer-Gembeck, 2010).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은 여자에게만 한정된 공격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기술 훈련을 통한 관계적 공격성 예방 및 대안 행동 교육은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에서는 남녀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일부 선행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나(윤혜영, 강지현, 2015; 이서란, 2014) 여성이 남성보다 수치심 경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김현주, 홍혜영, 2013; 하예린, 2015)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 초기 연구모형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관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어(이서란, 2014; 이하연, 2014)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박우람, 홍상환, 2015). 또한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문제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였고,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문제에서는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는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윤혜영, 강지현, 2015).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직접적으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계적 공격성의 경로를 통한 간접적 영향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키는 상담에서 청소년 내담자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개입 외에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으로써 내면화된 수치심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원격 변인(distal variable)으로 상담 장면에서 이에 대한 개입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근접 변인(proximal variable)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데,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이 검증된 만큼, 이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상대적으로 상담적 개입이 어려운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적 공격성을 통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개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관계적 공격성은 인기도, 소속감, 리더십 등에도 영향을 미쳐 학교적응에도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강지훈, 2003; 이정아, 2007), 청소년 상담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을 평가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기술 훈련을 통해 공격행동을 조절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모교육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증가하는 청소년시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양육태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부의 심리적 통제 역시 모의 심리적 통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 수정된 모형의 잠재변인 간의 경로에서 남녀의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면화되면 수치심으로 가는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수치심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는 보고되었지만(김현주, 홍혜영, 2013), 그 구체적인 기제나 원인을 탐색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아는 자신과 같은 성을 공유하고 있는 어머니를 동일시하며, 남아보다 높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는 남아를 자신과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는 반면, 여아는 자신의 연장선으로 생각한다(Chodorow, 1978). 이로 인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더 민감

하게 지각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자 청소년 상담 시, 어머니의 상담을 병행하여 간섭과 통제하는 양육태도가 아닌, 자율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데 치중해 왔으나,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부의 심리적 통제와 모의 심리적 통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실용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의 심리적 통제와 모의 심리적 통제를 구분하여 자녀의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의 심리적 통제는 남녀구분 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모의 심리적 통제는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므로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함을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관계적 공격성, 내면화된 수치심 각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와 달리, 관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의 인과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료 수집과정에서 청소년의 자기 보고에만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실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이 지각한 심리적 통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자신이 지각하는 심리적 통제에 대한 보고도 함께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의 심리적 통제와 모의 심리적 통제를 구분하며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부의 심리적 통제와 모의 심리적 통제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간의 직접적인 경로를 제외한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즉,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또래관계 간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넷째, 관계적 공격성 전체의 내적합치도는 높았으나 하위요인들은 낮은 내적합치도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하위요인들이 관계적 공격성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지만, 각 하위요인 내에서 내적합치도를 저해하는 이질적 문항이 존재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항들을 검토하여 전체 내적합치도 뿐만 아니라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 또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 심리적 통제가 자녀 양육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선행변인으로써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모교육을 위한 경험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지훈 (2003).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희, 박성연 (2009). 청소년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01-113.
- 김민선, 서영석 (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25-545.
- 김유리, 김희정 (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단절의 관계. 상담학연구, 14(5), 3041-3064.
- 김정숙 (2006). 아버지 역할 수행이 중학생의 대인관계 성향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29, 51-78.
- 김현주, 홍혜영 (2013). 고등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2), 181-209.
- 나하영, 신태섭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제시 동기-기대 차이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695-717.
- 남진열, 김상미 (201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2), 315-334.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학지사.
- 민선옥, 강영숙 (2015). 초기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4(0), 307-334.
- 박민정, 최보가 (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95-104.
- 박성옥, 신귀순, 고영숙 (2004). 또래환경 및 또래관계의 질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 10, 29-40.
- 박영신, 김의철 (2001).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7(1), 63-89.
- 박우람, 홍상황 (2015).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친구관계의 질의 관계: 적대감,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2), 285-302.
- 배병렬 (2017). AMOS 24.0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출판사.
- 서미정 (2011). 아동과 청소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 차이 및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지, 32(3), 143-162.
- 심은신, 이동훈 (2011). 여중생의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의도귀인과 또래동조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21-42.
- 심주한, 유형근, 손현동 (2008). 초등학교의 공격성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성향과 대인문제해결사과의 차이 분석. 열린교육연구, 16(2), 67-90.
- 심희옥 (2007). 또래 괴롭힘과 외현화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횡단 및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6), 1107-1118.
- 안수영, 이형실 (2009).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1(3), 163-176.

- 윤혜영, 강지현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405-42.
- 이서란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 이경님 (2004).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이 또래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659-672.
- 이외영 (2002).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S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정아 (2007). 중학생의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2008). 상담일반: 내면화된 수치심과 방어유형, 정서표현의 관계. 상담학연구, 9(2), 353-373.
- 이춘재, 곽금주 (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 이하연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홍, 김은정 (2012). 청소년의 공격성 하위 유형에 따른 인지 및 정서 특성. 청소년학연구, 19(1), 227-250.
-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5). 2014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 장재선 (2009). 청소년이 지각한 자율성, 부모양육행동, 부모-자녀 갈등과의 상관관계: 성별과 연령 변인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련, 이지연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통계, 12(2), 5-18.
- 정옥신, 김영희 (2008). 부모의 학습관여와 초기 청소년의 학습동기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2), 1-33.
- 조은정, 이기학 (2004).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경험이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5(3), 583-595.
- 조주연 (2010).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 정현희 (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역할수용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1), 125-139.
- 최지영, 허유성 (2008). 괴롭힘 상황에서의 참여자 역할 및 관계적 공격행동 지각유형에 따른 도덕판단력과 사회적 상호의존성. 청소년학연구, 15(6), 171-196.
- 최현화 (2000). 관계지향 공격아동과 외현화 공격아동의 의도성 판단 및 반응.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숙 (2006).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아버지 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89-212.
- 허준 (2013).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 한나래출판사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1), 161-177.
- 홍은수 (2002). 수치심의 이해 및 치유.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지연 (2014).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cher, J. (2004).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in real-world settings: A meta-analytic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8*(4), 291-322.
- Armentrout, J. A., & Burger, G. K. (1972).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t five grade levels. *Developmental Psychology, 7*(1), 44-48.
- Bandura, A. (1995). Exercise of personal and collective 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15*, 1-45.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jorkqvist, K., Lagerspetz, K. M., & Kaukiainen, A. (1992). Do girls manipulate and boys fight? Developmental trends in regard to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8*(2), 117-127.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273-308*.
- Chodorow, N. (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laesson, K., & Sohlberg, S. (2002). Internalized shame and early interactions characterized by indifference, abandonment and rejection: Replicated finding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9*(4), 277-284.
- Cook, D. R.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New York, NY: Multi Health System Inc.
- Crick, N. R., Casas, J. F., & Nelson, D. A. (2002). Toward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peer maltreatment: Studies of relational victimiza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3), 98-101.
- Crick, N. R., Ostrov, J. M., & Werner, N. E. (2006).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ggression, physical aggression, and children's social -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2), 127-138.
- Eron, L. D. (1982). Parent-child interaction, television violence, and aggression of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37*(2), 197-211.
- Goss, K., Gilbert, P., & Allan, S. (1994). An exploration of shame measures-I: The other as shamer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5), 713-717.
- Harder, D. W., & Lewis, S. J. (1987).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6*, 89-114.
- Hartup, W. W. (1993). Adolescents and their friend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93*(60), 3-22.
- Henry, D. B., Tolan, P. H., & Gorman-Smith, D. (2001). Longitudinal family and peer group effects on violence and nonviolent delinquen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2), 172-186.
- Kuppens, S., Grietens, H., Onghena, P., &

- Michiels, D. (2009).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control and children's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607-623.
- Loader, B. (1998). *Cyberspace divide: Equality, agency, and policy in the information society*. London: Routledge.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Pronk, R. E., & Zimmer-Gembeck, M. J. (2010). It's "mean," but what does it mean to adolescents? Relational aggression described by victims, aggressors, and their pee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5(2), 175-204.
- Wells, M., & Jones, R.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19-27.
- Yoon, J. S., Barton, E., & Taiariol, J. (2004). Relational aggression in middle school educational implications of developmental research.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4(3), 303-318.
- Yuan, K. H., Bentler, P. M., & Kano, Y. (1997). On averaging variables in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Behaviormetrika*, 24(1), 71-83.

원 고 접 수 일 : 2017. 03. 13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6. 16

게 재 결 정 일 : 2017. 07. 26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eer Relationship on Adolescent : The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al Aggression and Internalized Shame

Ho Yeon Jang

Jin Yi Jang

Daegu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ole of relational aggression and internalized sha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eer relationships; a cross-gender analysis was also conducted. Participants included 595 adolescents who were recruited from middle and high schools in Daegu, Gyeongbuk, and Ulsan. Results showed that relational aggress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eer relationships; internalized shame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eer relationships. The study also revealed that highe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sulted in higher levels of internalized shame; specifically, relational aggression negatively affects peer relationships. According to multiple group analyses regarding gender differences, disparities were found in the effects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internalized shame.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lationship on adolescent, internalized shame, peer relationship